

건정연,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열어

‘호주정부의 개선된 하도급 지급보증 시스템’ 소개

2013년 07월 08일 (월)

이시봉 ✉ sblee27@kosca.or.kr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지난 3일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3년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김진우 교수가 ‘호주 정부의 개선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에서 1999년 제정하고 2010년 개정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안전보장에 관한 법’의 내용과 절차 등을 소개했다.



이 법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적기에 적절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자 등이 법에서 지정하는 제3자인 조정관(Adjudicator)을 통해 신속하게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 아주대학교 신동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과의 차이점을 비롯해 호주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앞으로 외국의 건설정책 및 산업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봉 기자